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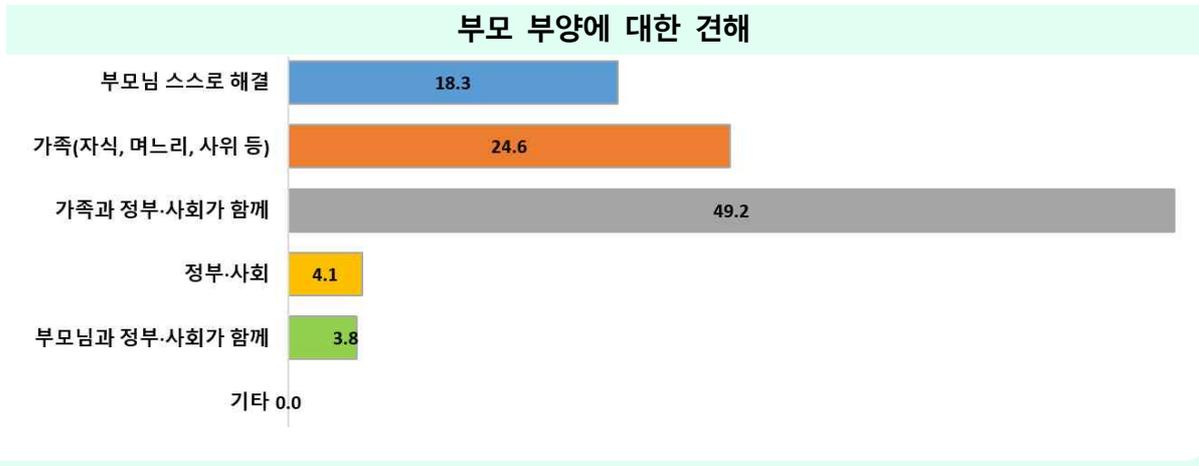
3. 전라남도 항목

- 3-1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3-2 월평균 가구 소비
- 3-3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가구주, 주된응답)
- 3-4 청년지원정책(주된응답)
- 3-5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 3-6 스트레스 정도 - 1) 가정생활
- 3-7 스트레스 정도 - 2) 직장생활
- 3-8 스트레스 정도 - 3) 학교생활
- 3-9 스트레스 정도 - 4) 전반적인 일상생활
- 3-10 쓰레기 처리 만족도 - 1) 생활폐기물
- 3-11 쓰레기 처리 만족도 - 2) 음식물쓰레기
- 3-12 쓰레기 처리 만족도 - 3) 재활용쓰레기
- 3-13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3-14 스마트폰 이용실태 - 1) 없으면 불안하다
- 3-15 스마트폰 이용실태 - 2) 이용시간 조절실패
- 3-16 스마트폰 이용실태 - 3) 성적이나 업무능률이 하락
- 3-17 스마트폰 이용실태 - 4) 사람간에 갈등을 야기한 원인
- 3-18 스마트폰 이용실태 - 5) 통증 경험(눈이나 목 등)
- 3-19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 1) 긍정적 의견
- 3-20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 2) 부정적 의견
- 3-21 여가활동 - 주로 하는 여가활동(복수응답)
- 3-22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 3-23 주거 화재 안전시설
- 3-24 주거 화재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 - 향후 설치의향
- 3-25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3-1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부모의 노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49.2%

- 부모님의 노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자식, 며느리, 사위 등)」 24.6%, 「부모님 스스로 해결」 18.3%, 「정부·사회」 4.1%, 「부모님과 정부·사회가 함께」 3.8% 순임.
- 2018년 대비 각 항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64.8%에서 49.2%로, 「부모님과 정부·사회가 함께」 5.8%에서 3.8%로 감소하였으며, 「부모님 스스로 해결」 10.6%에서 18.3%, 「가족(자식, 며느리, 사위 등)」 15.3%에서 24.6%, 「정부·사회」 3.6%에서 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응답은 지역별로 서남부권 60.0%, 북부권 49.8%, 중부권 37.7% 순으로 나타나며, 여자(48.0%)보다 남자(50.3%)가 높고, 연령별로 40대(63.6%)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님 스스로 해결」 응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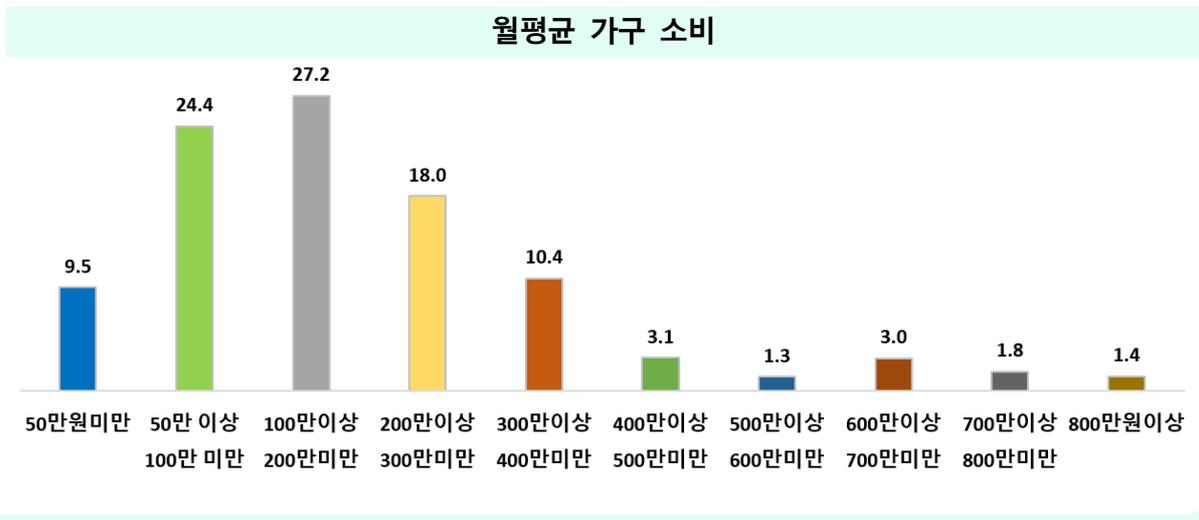
구분	계	부모님 스스로 해결	가족(자식, 며느리, 사위 등)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정부·사회	부모님과 정부·사회가 함께	기타
2018년	100.0	10.6	15.3	64.8	3.6	5.8	0.0
2020년	100.0	18.3	24.6	49.2	4.1	3.8	0.0
< 지역별 >							
중부권	100.0	28.6	27.4	37.7	3.8	2.6	0.0
북부권	100.0	9.3	31.2	49.8	6.2	3.5	0.0
서남부권	100.0	14.2	17.6	60.0	3.0	5.2	0.0
< 성별 >							
남자	100.0	17.8	24.2	50.3	4.1	3.6	0.0
여자	100.0	18.9	24.9	48.0	4.1	4.0	0.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2 월평균 가구 소비

월 평균 가구 소비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 월 평균 가구소비는 「100~200만원 미만」이 27.2%로 가장 많고, 「50~100만원 미만」 24.4%, 「200~300만원 미만」 18.0% 순으로 나타남.
- 평균 가구 소비는 2019년도(157.2만원) 대비 2020년도(210.1만원) 52.9만원 증가함. 2018년 이후 평균 가구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평균 소비는 북부권 246.3만원, 중부권 211.8만원, 서남부권 184.7만원 순으로 나타나며,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두 지역 간 차이는 61.7만원으로 조사됨.
- 성별로 여자 평균 소비는 108.2만원이며, 남자는 233.4만원으로 125.2만원 차이임.
- 평균 소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이며, 평균 소비는 303.3만원 임.



[표 3-2] 월평균 가구 소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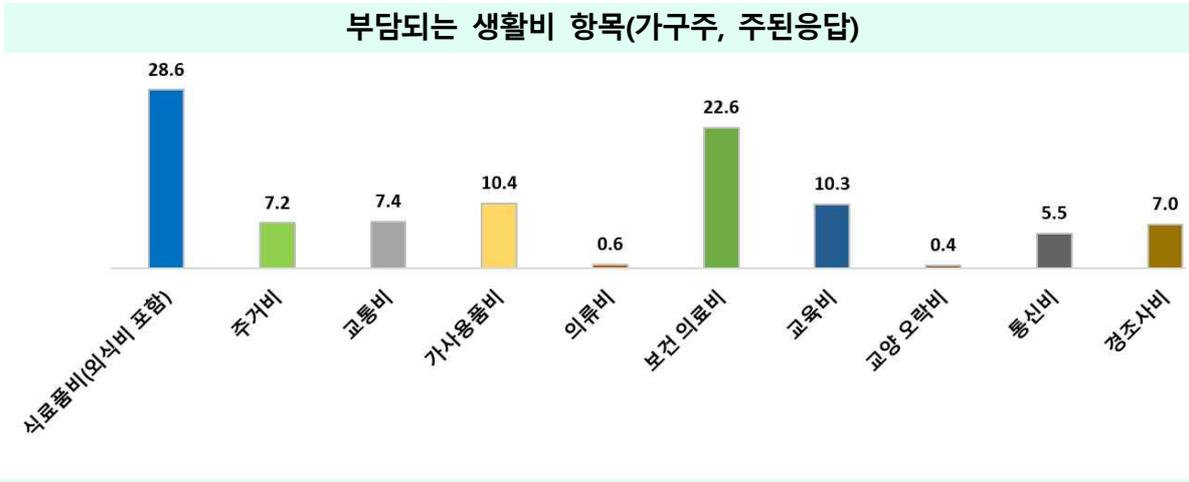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00만 이상 300만 미만	300만 이상 400만 미만	400만 이상 500만 미만	500만 이상 600만 미만	600만 이상 700만 미만	700만 이상 800만 미만	8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2017년	100.0	28.3	31.3	23.0	11.8	4.2			1.5			152.3
2018년	100.0	25.7	23.2	26.2	16.3	4.7	1.6	0.8	0.8	0.1	0.4	145.5
2019년	100.0	19.1	24.9	30.2	13.6	8.0	2.5	0.6	0.3	0.1	0.7	157.2
2020년	100.0	9.5	24.4	27.2	18.0	10.4	3.1	1.3	3.0	1.8	1.4	210.1
< 지역별 >												
중부권	100.0	13.9	24.2	19.8	19.4	10.1	4.8	2.3	3.5	0.4	1.6	211.8
북부권	100.0	6.7	26.4	25.6	13.7	11.3	3.0	0.8	4.5	4.9	3.1	246.3
서남부권	100.0	6.8	23.3	36.1	19.3	10.1	1.3	0.6	1.4	1.2	0.0	184.7
< 성별 >												
남자	100.0	4.4	20.2	30.2	20.9	12.0	3.6	1.5	3.4	2.1	1.7	233.4
여자	100.0	31.9	42.6	14.1	5.3	3.1	0.6	0.6	1.2	0.6	0.0	108.2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3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가구주, 주된응답)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는 「식료품비」로 나타나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식료품비」가 28.6%로 가장 높으며, 「식료품비」 응답이 2019년(34.9%) 대비 6.3% 감소함.
- 지역별로 북부권(19.7%)과 서남부권(30.2%)은 「식료품비」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부권은 「보건 의료비」(33.4%)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식료품비」(28.7%)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여자는 「보건 의료비」(36.9%)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는 「의류비」가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로 응답하였으며, 30대~60대는 「식료품비」 응답이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은 「보건 의료비」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0대에서 비교적 「교육비」(32.4%)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가구주, 주된응답)

(단위: %)

구분	계	식료품비(의식비 포함)	주거비	교통비	가사용품비	의류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교양 오락비	통신비	경조사비	기타
2017년	100.0	36.4	7.9	11.1	11.7	0.5	18.9	7.6		2.5	2.1	1.1
2018년	100.0	37.9	9.8	3.2	9.4	1.1	21.8	5.1	0.7	2.7	7.0	1.0
2019년	100.0	34.9	9.4	8.6	5.4	1.2	24.8	6.7	0.6	2.9	5.6	0.0
2020년	100.0	28.6	7.2	7.4	10.4	0.6	22.6	10.3	0.4	5.5	7.0	
< 지역별 >												
중부권	100.0	32.7	5.7	7.6	11.7	0.9	33.4	2.6	0.9	1.8	2.7	
북부권	100.0	19.7	18.5	15.8	8.0	0.3	14.1	15.6	0.0	5.6	2.5	
서남부권	100.0	30.2	1.3	1.8	10.5	0.5	16.8	14.9	0.2	9.3	14.5	
< 성별 >												
남자	100.0	28.7	7.7	8.2	10.1	0.3	19.3	12.2	0.4	6.4	6.6	
여자	100.0	28.2	5.0	4.0	11.4	1.9	36.9	1.8	0.4	1.5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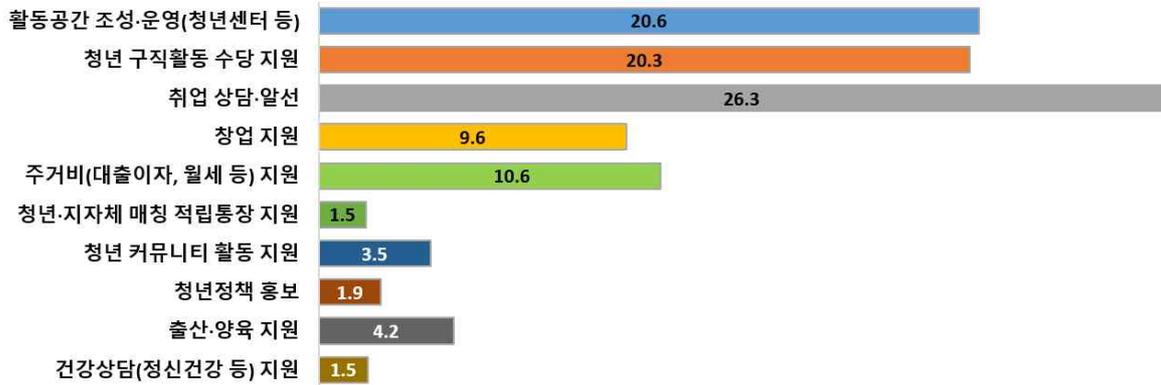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4 청년지원정책(주된응답)

청년지원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 26.3%

-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취업 상담·알선」 응답이 26.3%로 가장 높고, 「활동 공간 조성·운영(청년센터 등)」 20.6%,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 20.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활동 공간 조성·운영」(30.4%) 응답이 가장 높고, 북부권은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34.4%), 서남부권은 「취업 상담·알선」(29.1%)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와 여자 모두 「취업 상담·알선」 응답이 가장 많고, 남자(24.7%)보다 여자(28.2%)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와 40대에서는 「활동 공간 조성·운영」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 50세 이상은 「취업 상담·알선」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청년지원정책(주된응답)



[표 3-4] 청년지원정책(주된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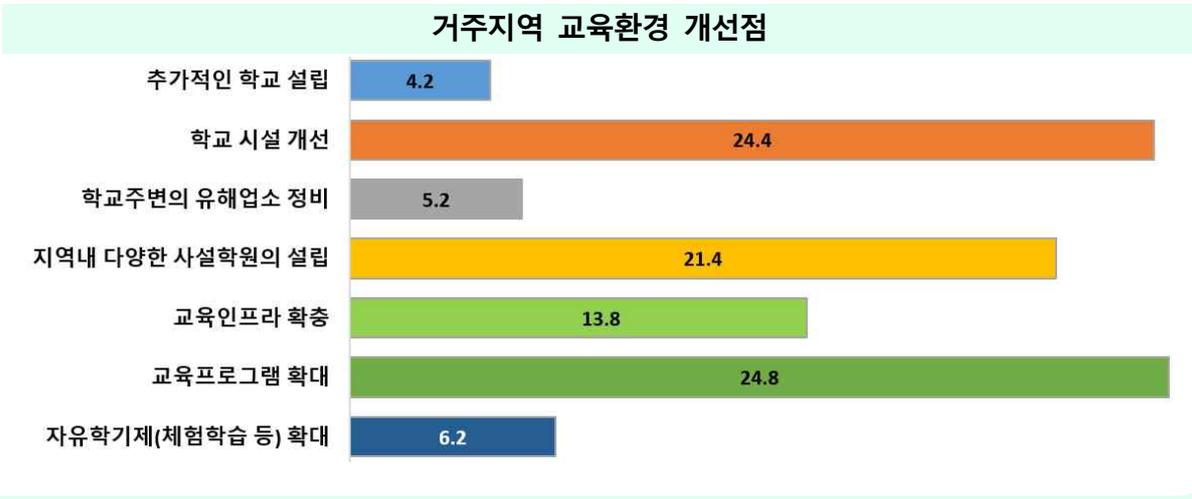
구분	계	활동공간 조성·운영(청년센터 등)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	취업 상담·알선	창업 지원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	청년·지자체 매칭 적립통장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정책 홍보	출산·양육 지원	건강상담(정신건강 등) 지원	기타
2020년 <지역별>	100.0	20.6	20.3	26.3	9.6	10.6	1.5	3.5	1.9	4.2	1.5	
중부권	100.0	30.4	10.0	25.8	5.6	13.5	1.9	3.3	1.7	5.7	2.3	
북부권	100.0	15.9	34.4	22.9	11.3	7.4	1.4	2.4	0.4	3.7	0.2	
서남부권	100.0	14.0	21.2	29.1	12.3	10.0	1.2	4.4	3.1	3.1	1.7	
<성별>												
남자	100.0	22.9	20.5	24.7	9.9	10.6	1.6	3.0	2.3	2.7	1.8	
여자	100.0	17.8	20.0	28.2	9.2	10.7	1.3	4.0	1.5	5.9	1.2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5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확대」해야

- 거주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개선해야 할 분야로 「교육프로그램 확대(방과 후 프로그램 등)」 응답이 24.8%로 가장 높고, 「학교 시설 개선」 24.4%, 「지역 내 다양한 사설학원의 설립」 21.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29.4%)과 북부권(28.4%)은 「지역 내 다양한 사설학원의 설립」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학교 시설 개선」(25.5%)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학교 시설 개선」(25.2%) 응답이 많고, 여자는 「교육프로그램 확대」(28.2%)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와 70세 이상은 「교육프로그램 확대」 응답이 높고, 30대~50대는 「지역 내 다양한 사설학원의 설립」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60대는 「학교시설 개선」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5] 거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단위: %)

구분	계	추가적인 학교설립	학교 시설 개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정비	지역내 다양한 사설학원의 설립	교육인프라 확충	교육프로그램 확대	자유학기제(체험학습 등) 확대	기타
2018년	100.0	2.0	37.2	5.7	11.4	17.3	21.5	4.6	0.1
2020년	100.0	4.2	24.4	5.2	21.4	13.8	24.8	6.2	
< 지역 별 >									
중부권	100.0	5.9	22.3	1.4	29.4	8.4	28.9	3.6	
북부권	100.0	0.5	25.7	2.7	28.4	13.9	25.0	3.9	
서남부권	100.0	5.0	25.5	10.5	9.2	19.0	20.7	10.2	
< 성 별 >									
남자	100.0	4.1	25.2	5.1	21.8	15.6	21.8	6.4	
여자	100.0	4.4	23.3	5.4	20.9	11.8	28.2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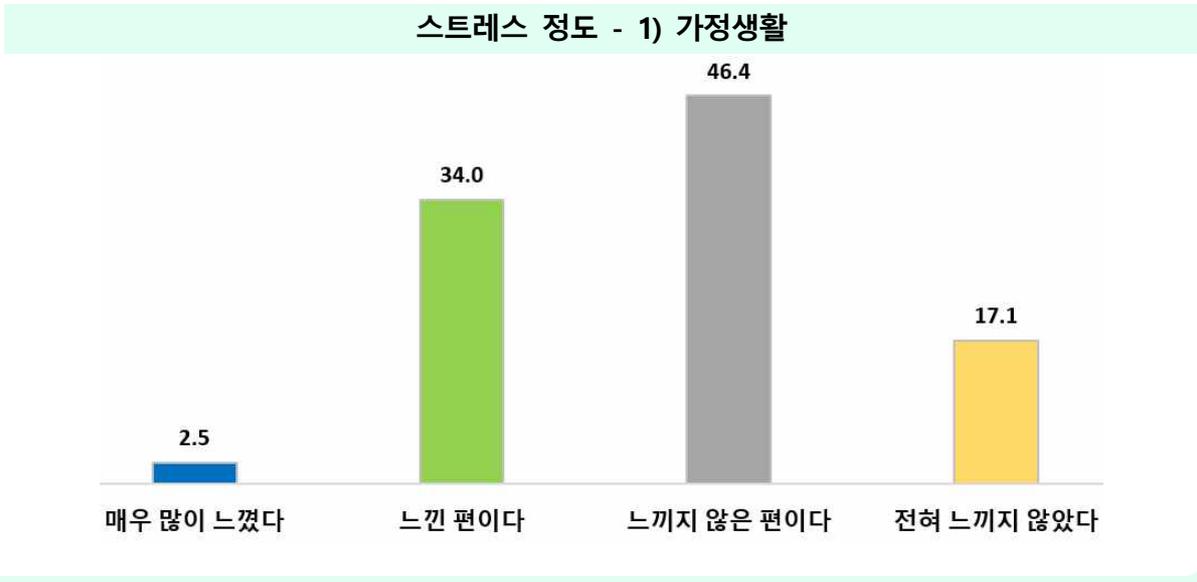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6 스트레스 정도 - 1) 가정생활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는 편」

• 가정생활에서 지난 2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느끼지 않는 편이다」 응답이 46.4%로 가장 많고, 「느낀 편이다」 34.0%, 「전혀 느끼지 않았다」 17.1%, 「매우 많이 느꼈다」 2.5%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를 「느낀다」 응답은 36.5%로 2018년(55.5%) 대비 19.0% 감소함.
- 지역별로 「느낀다」 응답은 서남부권 46.1%, 중부권 31.9%, 북부권 28.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35.6%)보다 여자(37.6%)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50대(43.9%)에서 가장 많고, 「느끼지 않는다」 응답은 15~29세(71.2%)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 스트레스 정도 - 1) 가정생활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2018년	100.0	4.5	51.0	35.5	9.0
2020년	100.0	2.5	34.0	46.4	17.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5	31.4	54.5	13.6
북 부 권	100.0	0.9	27.5	38.9	32.7
서 남 부 권	100.0	5.5	40.5	43.4	10.6
< 성 별 >					
남 자	100.0	2.5	33.0	46.4	18.0
여 자	100.0	2.5	35.1	46.4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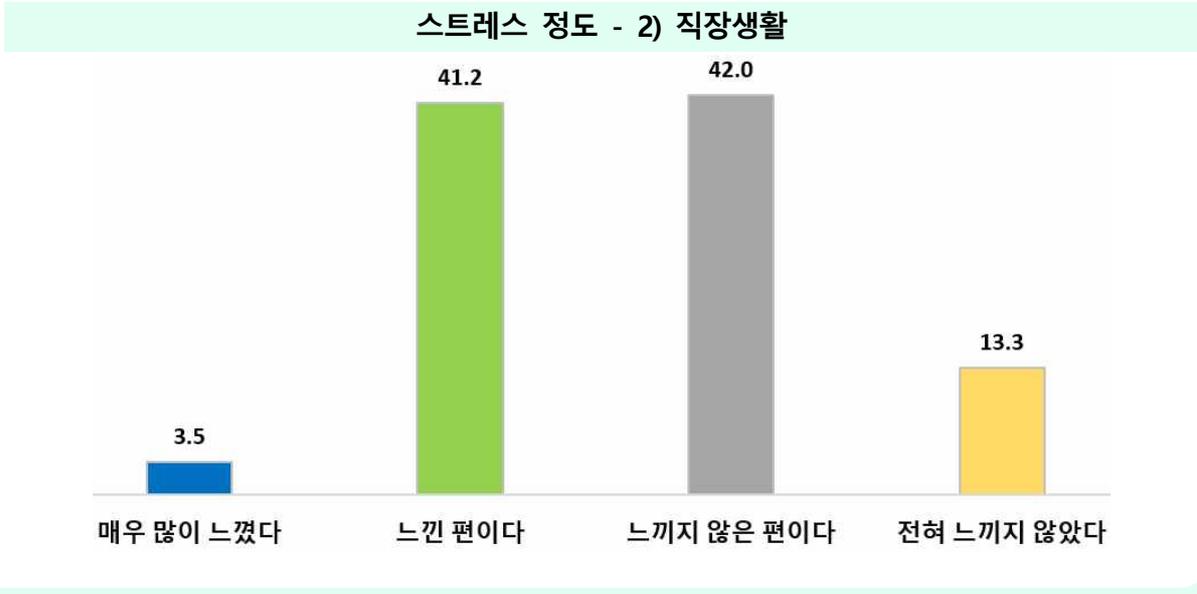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7 스트레스 정도 - 2) 직장생활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는 편」

• 직장생활에서 지난 2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느끼지 않는 편이다」 응답이 42.0%로 가장 많고, 「느낀 편이다」 41.2%, 「전혀 느끼지 않았다」 13.3%, 「매우 많이 느꼈다」 3.5%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를 「느낀다」 응답은 44.7%로 2018년(77.6%) 대비 32.9% 감소함.
- 지역별로 「느낀다」 응답은 서남부권 50.6%, 중부권 45.8%, 북부권 33.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자(41.2%)보다 남자(47.1%)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30대(57.0%)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직업별로 전문/관리직 종사자가(50.6%) 직장생활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조사되었으며, 농림어업 종사자(41.7%)는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스트레스 정도 - 2) 직장생활

(단위: %)

구 분	계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2018년	100.0	17.8	11.1	66.5	20.1	2.3	82.2
2020년	100.0	77.1	3.5	41.2	42.0	13.3	22.9
< 지역 별 >							
중부권	100.0	77.4	0.8	45.1	41.6	12.6	22.6
북부권	100.0	75.5	1.8	31.6	43.7	22.9	24.5
서남부권	100.0	77.8	7.0	43.6	41.3	8.1	22.2
< 성 별 >							
남자	100.0	85.4	3.8	43.2	38.9	14.0	14.6
여자	100.0	67.5	2.9	38.3	46.5	12.2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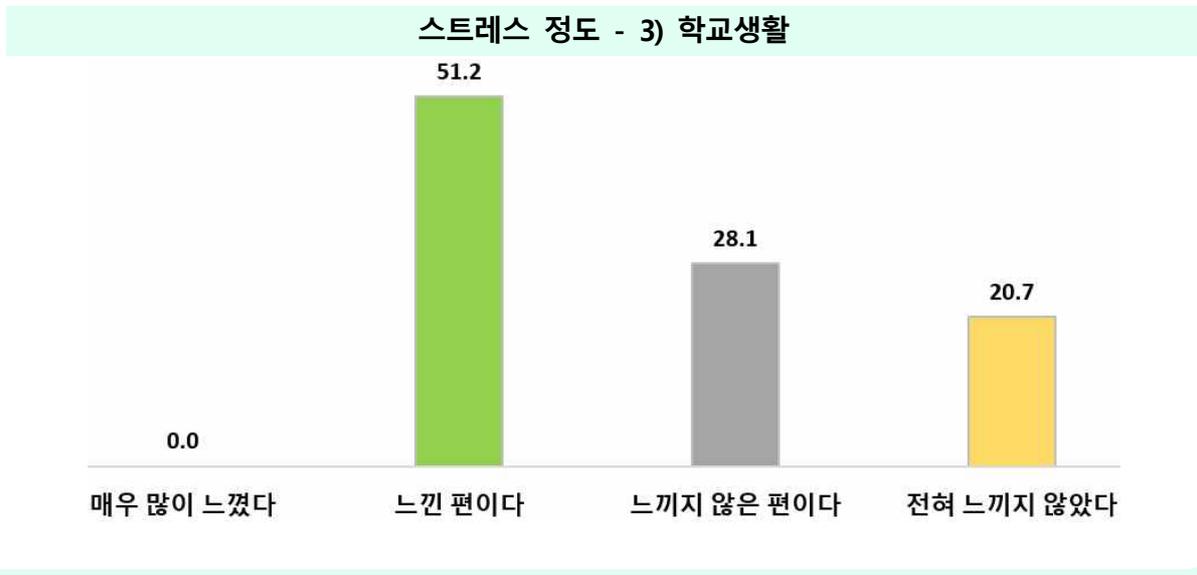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8 스트레스 정도 - 3) 학교생활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느끼는 편」

- 학교생활에서 지난 2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느낀 편이다」 응답이 51.2%로 가장 많고, 「느끼지 않는 편이다」 28.1%, 「전혀 느끼지 않았다」 20.7%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를 「느낀다」 응답은 51.2%로 2018년(70.3%) 대비 19.1% 감소함.
- 지역별로 「느낀다」 응답은 중부권 77.4%, 북부권 46.2%, 서남부권 45.7%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자(45.2%)보다 남자(55.0%)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스트레스 정도 - 3) 학교생활

(단위: %)

구분	계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2018년	100.0	4.3	0.0	70.3	29.7	0.0	95.7
2020년	100.0	3.4	0.0	51.2	28.1	20.7	96.6
< 지역별 >							
중부권	100.0	1.5	0.0	77.4	22.6	0.0	98.5
북부권	100.0	5.7	0.0	46.2	26.9	26.9	94.3
서남부권	100.0	3.6	0.0	45.7	31.5	22.8	96.4
< 성별 >							
남자	100.0	3.9	0.0	55.0	17.9	27.1	96.1
여자	100.0	2.8	0.0	45.2	44.4	10.4	97.2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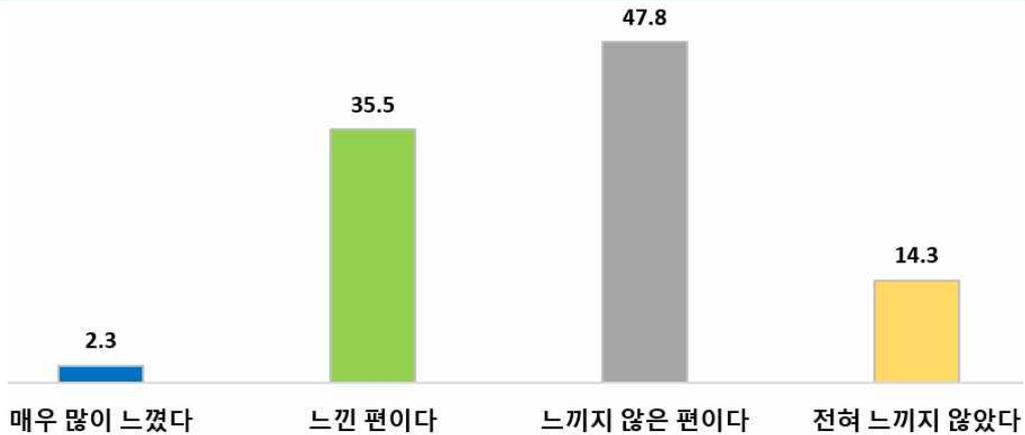
3-9 스트레스 정도 - 4) 전반적인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느끼지 않는 편」

•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지난 2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느끼지 않는 편이다」 응답이 47.8%로 가장 많고, 「느낀 편이다」 35.5%, 「전혀 느끼지 않았다」 14.3%, 「매우 많이 느꼈다」 2.3% 순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를 「느낀다」 응답은 37.9%로 2018년(59.7%)대비 21.8% 감소함.
- 지역별로 「느낀다」 응답은 서남부권 47.2%, 중부권 32.6%, 북부권 31.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자(37.8%)보다 남자(37.9%)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50대에서 「느낀다」 응답이 43.8%로 가장 높고, 「느끼지 않았다」 응답은 60대(66.5%)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별로 실업 및 비경제활동 응답자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스트레스 정도 - 4) 전반적인 일상생활



[표 3-9] 스트레스 정도 - 4) 전반적인 일상생활

(단위: %)

구분	계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2018년	100.0	4.9	54.8	32.5	7.9
2020년	100.0	2.3	35.5	47.8	14.3
< 지역 별 >					
중부권	100.0	0.0	32.6	55.7	11.7
북부권	100.0	0.9	30.4	40.7	28.1
서남부권	100.0	5.5	41.6	44.8	8.0
< 성 별 >					
남자	100.0	2.4	35.5	47.6	14.5
여자	100.0	2.2	35.6	48.1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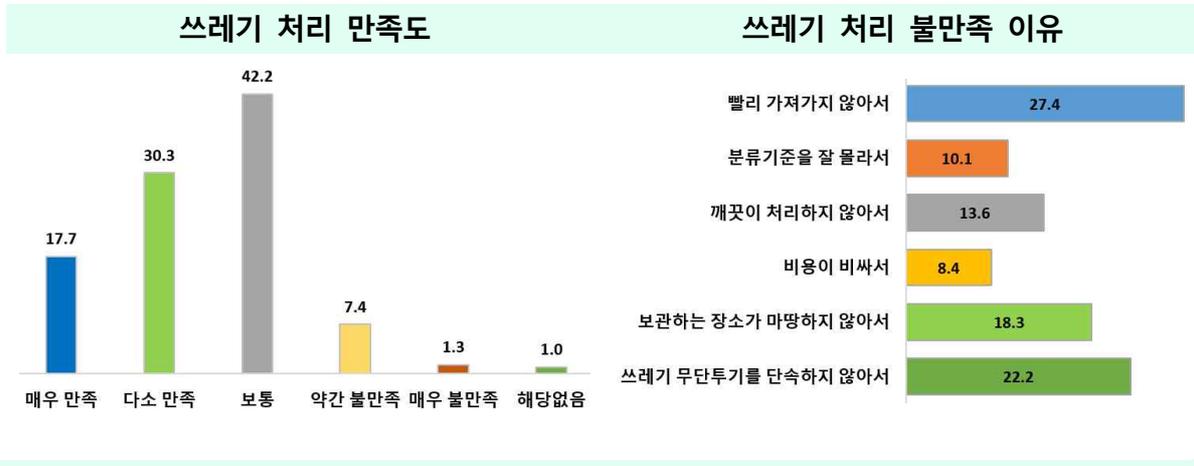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10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 「만족함」

• 전라남도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만족함」 응답이 48.0%이며,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27.4%)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만족」(48.0%) 응답이 「불만족」(8.8%)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처리에 대한 「만족」 응답은 중부권 61.6%, 북부권 42.0%, 서남부권 38.7% 순임.
-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27.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지 않아서」 22.2%,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18.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29.7%)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33.9%), 서남부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지 않아서」(39.8%)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0]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생활폐기물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만족도	해당없음
2020년 <지역별>	100.0	17.7	30.3	42.2	7.4	1.3	3.6	1.0
중부권	100.0	34.5	27.1	28.3	8.6	1.5	3.8	0.0
북부권	100.0	12.9	29.0	49.7	8.0	0.3	3.5	0.0
서남부권	100.0	4.5	34.2	50.9	5.9	1.8	3.3	2.6

[표 3-11]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생활폐기물 (단위: %)

구 분	계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싸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기타
2020년 <지역별>	100.0	27.4	10.1	13.6	8.4	18.3	22.2	
중부권	100.0	29.7	4.3	9.2	19.7	24.4	12.6	
북부권	100.0	11.2	33.9	16.4	0.0	24.6	13.9	
서남부권	100.0	35.5	1.2	17.2	0.0	6.4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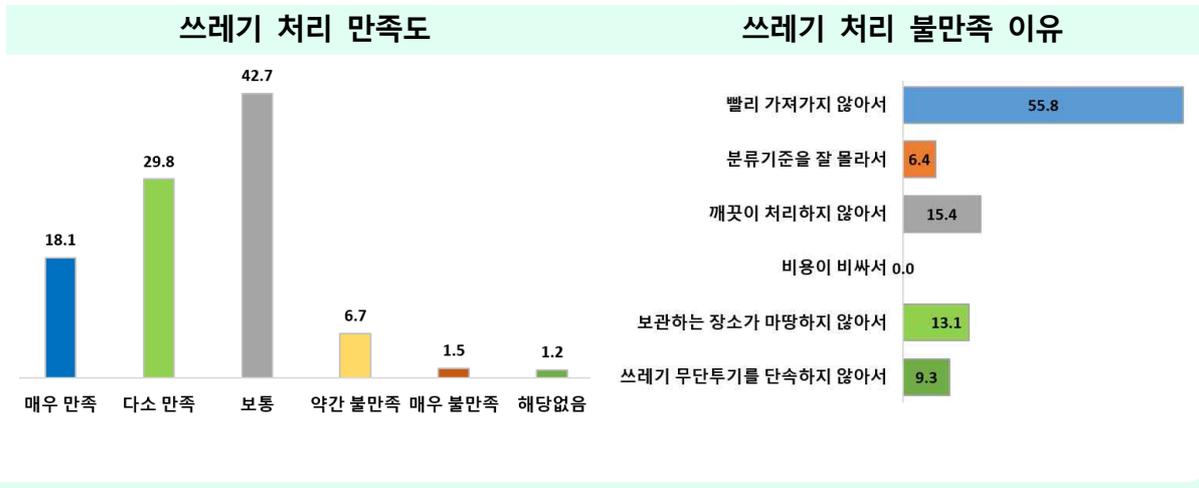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11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만족함」

• 전라남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만족함」 응답이 47.9%이며,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55.8%)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만족」(47.9%) 응답이 「불만족」(8.2%)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처리에 대한 「만족」 응답은 중부권 65.9%, 북부권 39.4%, 서남부권 36.0% 순임.
-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55.8%,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15.4%,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13.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29.7%)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 69.8%, 서남부권 56.1%, 중부권 41.0% 순으로 나타남.



[표 3-12]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음식물쓰레기

(단위: %)

구 분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만족도	해당없음
2020년 <지역별>	100.0	18.1	29.8	42.7	6.7	1.5	3.6	1.2
중부권	100.0	36.8	29.2	26.6	6.4	1.0	3.9	0.0
북부권	100.0	12.9	26.4	48.9	9.8	1.9	3.4	0.0
서남부권	100.0	3.3	32.6	54.3	4.9	1.7	3.3	3.2

[표 3-13]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음식물쓰레기

(단위: %)

구 분	계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싸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기타
2020년 <지역별>	100.0	55.8	6.4	15.4	0.0	13.1	9.3	
중부권	100.0	41.0	9.2	17.8	0.0	28.1	4.0	
북부권	100.0	69.8	5.7	12.8	0.0	8.2	3.5	
서남부권	100.0	56.1	4.3	15.7	0.0	2.4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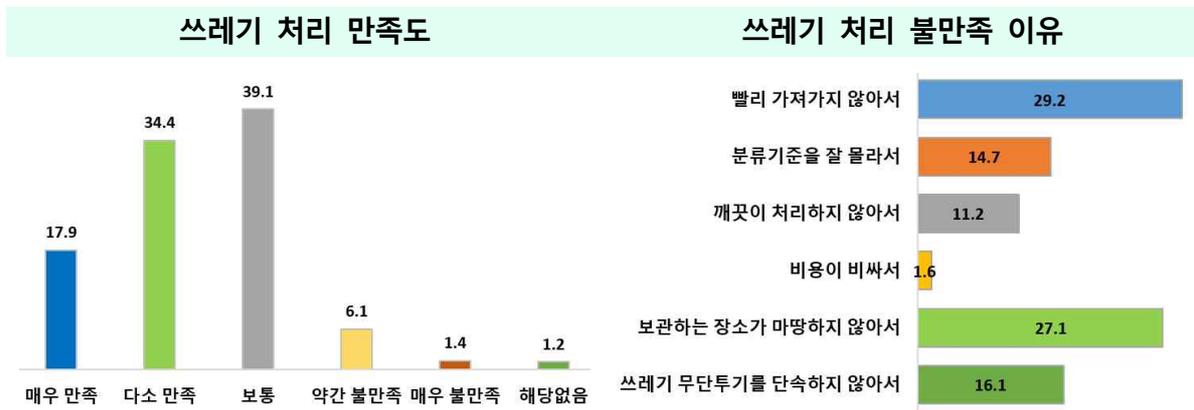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12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재활용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처리 「만족함」

• 전라남도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 「만족함」 응답이 52.3%이며,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29.2%)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만족」(52.3%) 응답이 「불만족」(7.5%)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처리에 대한 「만족」 응답은 중부권 63.8%, 서남부권 46.9%, 북부권 43.5% 순임.
-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29.2%,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27.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지 않아서」 16.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31.7%)과 북부권(47.5%)은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39.9%)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4]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재활용쓰레기

(단위: %)

구분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만족도	해당없음
2020년 <지역별>	100.0	17.9	34.4	39.1	6.1	1.4	3.6	1.2
중부권	100.0	36.1	27.7	26.7	7.5	2.0	3.9	0.0
북부권	100.0	12.9	30.7	49.7	6.0	0.1	3.5	0.6
서남부권	100.0	3.7	43.2	44.2	4.8	1.5	3.4	2.6

[표 3-15]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재활용쓰레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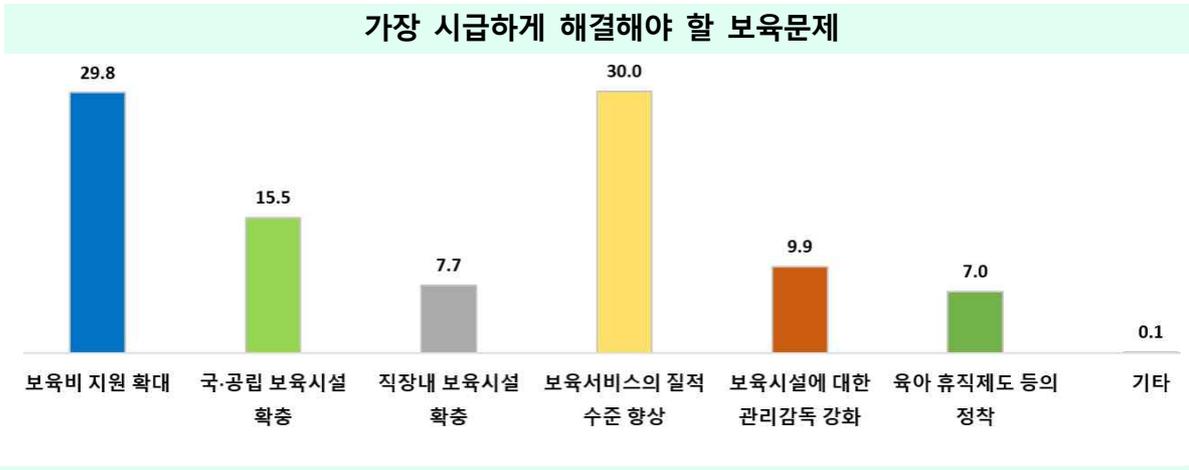
구분	계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비용이 비싸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기타
2020년 <지역별>	100.0	29.2	14.7	11.2	1.6	27.1	16.1	
중부권	100.0	26.6	21.4	9.7	3.3	31.7	7.2	
북부권	100.0	18.0	6.3	0.0	0.0	47.5	28.2	
서남부권	100.0	39.9	10.3	20.2	0.0	7.9	21.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13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보육문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아동의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응답이 30.0%로 가장 많고, 「보육비 지원 확대」 29.8%,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5.5%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응답은 30.0%로 2018년(20.6%)대비 9.4% 증가함.
- 지역별로 중부권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5.5%)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33.4%)과 서남부권(29.0%)은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은 남자(28.8%)보다 여자(31.1%)가 많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응답은 여자(26.0%)보다 남자(33.5%)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증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응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6]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구분	계	보육비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착	기타
2018년	100.0	40.8	12.9	8.4	20.6	13.0	4.3	
2020년	100.0	29.8	15.5	7.7	30.0	9.9	7.0	0.1
< 지역별 >								
중부권	100.0	28.4	16.4	5.8	35.5	7.0	6.7	0.2
북부권	100.0	33.4	15.0	7.5	26.6	5.8	11.8	0.0
서남부권	100.0	29.0	14.9	9.8	26.8	15.2	4.3	0.0
< 성별 >								
남자	100.0	28.8	14.7	6.6	33.5	9.8	6.6	0.0
여자	100.0	31.1	16.4	9.0	26.0	10.0	7.4	0.1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14 스마트폰 이용실태 - 1) 없으면 불안하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54.1%

- 스마트폰 사용률은 76.0%이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2.9%로 나타남.
- 「불안하다」(22.9%) 응답보다 「불안하지 않다」(54.1%)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사용률은 중부권 80.3%, 서남부권 76.7%, 북부권 68.4% 순으로 나타남. 「불안하다」는 응답은 중부권 34.5%, 서남부권 15.6%, 북부권 15.2% 순으로 조사됨.
- 여자(64.6%)보다 남자(85.8%)가 스마트폰 사용률이 더 높고, 「불안하다」 응답은 남자(22.4%)보다 여자(23.6%)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이 많고, 「불안하다」는 응답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스마트폰 이용실태 - 없으면 불안



[표 3-17] 스마트폰 이용실태 - 1) 없으면 불안하다

(단위: %)

구분	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소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아니다		
2020년	100.0	76.0	100.0	6.7	16.2	23.0	15.2	38.9	24.0
<지역별>									
중부권	100.0	80.3	100.0	7.8	26.7	12.7	15.8	37.0	19.7
북부권	100.0	68.4	100.0	5.7	9.5	26.2	17.9	40.7	31.6
서남부권	100.0	76.7	100.0	6.2	9.4	31.5	13.1	39.8	23.3
<성별>									
남자	100.0	85.8	100.0	7.5	14.9	24.6	14.1	38.8	14.2
여자	100.0	64.6	100.0	5.5	18.1	20.4	16.8	39.1	35.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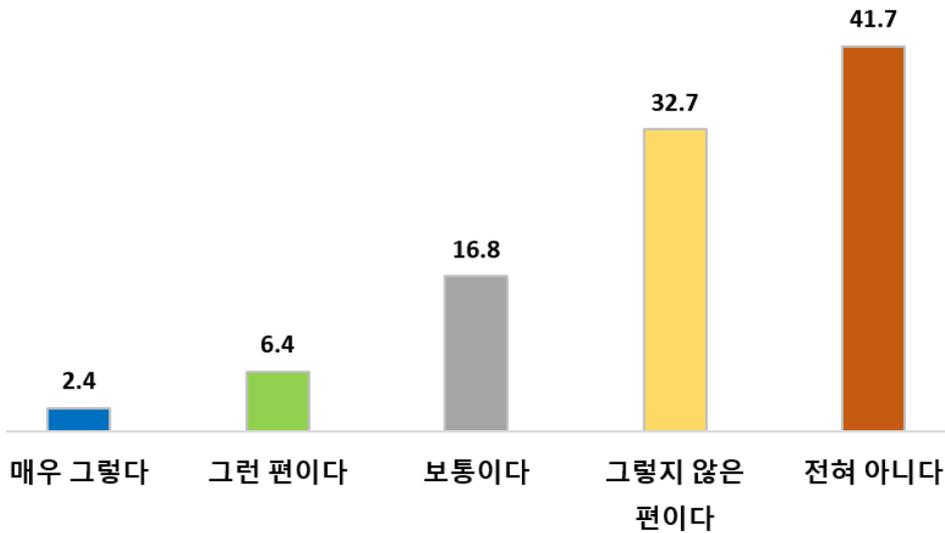
3-15 스마트폰 이용실태 - 2) 이용시간 조절실패

스마트 폰 사용 시간 조절 「실패 경험」 8.8%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니다」 응답이 41.7%로 가장 많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7%, 「보통이다」 16.8% 순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을 때 실패한 경험은 8.8%로 나타남.

- 실패 경험 「있다」(8.8%) 응답보다 「없다」(74.4%)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실패 경험은 북부권이 10.4%, 서남부권 8.9%, 중부권 7.9% 순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을 때 실패 경험 「있다」 응답은 15세~29세에서 22.3%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 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폰 이용실태 - 이용시간 조절실패



[표 3-18] 스마트폰 이용실태 - 2) 이용시간 조절실패

(단위: %)

구 분	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용시간 조절실패							
		소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아니다		
2020년 <지역별>	100.0	76.0	100.0	2.4	6.4	16.8	32.7	41.7	24.0
중부권	100.0	80.3	100.0	1.9	6.0	10.9	36.4	44.8	19.7
북부권	100.0	68.4	100.0	2.1	8.3	22.1	24.7	42.7	31.6
서남부권	100.0	76.7	100.0	3.2	5.7	19.6	33.4	38.1	23.3
<성별>									
남자	100.0	85.8	100.0	2.5	6.4	18.3	32.1	40.6	14.2
여자	100.0	64.6	100.0	2.4	6.3	14.4	33.5	43.4	35.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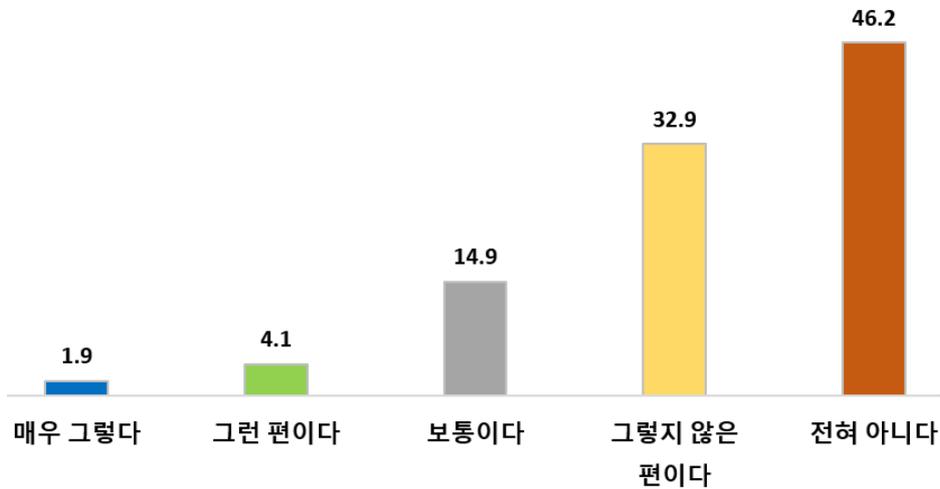
3-16 스마트폰 이용실태 - 3) 성적이나 업무능률이 하락

성적이나 업무능률이 하락한 경험 「있다」 6.0%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학교성적이나 업무능률이 떨어진 경험은 6.0%로 응답하였으며, 「전혀 아니다」 46.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9%, 「보통이다」 14.9% 순으로 나타남.

- 「그렇다」(6.0%) 응답보다 「그렇지 않다」(79.1%)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그렇다」 응답은 서남부권 8.9%, 북부권 7.2%, 중부권 2.4%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학교성적이나 업무능률이 하락한 경험에 「그렇다」 응답이 15~29세에서 16.8%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 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폰 이용실태 - 성적이나 업무능률이 하락



[표 3-19] 스마트폰 이용실태 - 3) 성적이나 업무능률이 하락

(단위: %)

구분	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성적이나 업무능률이 하락							
		소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아니다		
2020년	100.0	76.0	100.0	1.9	4.1	14.9	32.9	46.2	24.0
< 지역별 >									
중부권	100.0	80.3	100.0	0.4	1.9	10.0	39.5	48.2	19.7
북부권	100.0	68.4	100.0	1.4	5.8	20.0	23.9	48.9	31.6
서남부권	100.0	76.7	100.0	3.6	5.4	16.9	31.4	42.7	23.3
< 성별 >									
남자	100.0	85.8	100.0	1.6	5.4	14.6	31.7	46.6	14.2
여자	100.0	64.6	100.0	2.3	2.1	15.3	34.8	45.7	35.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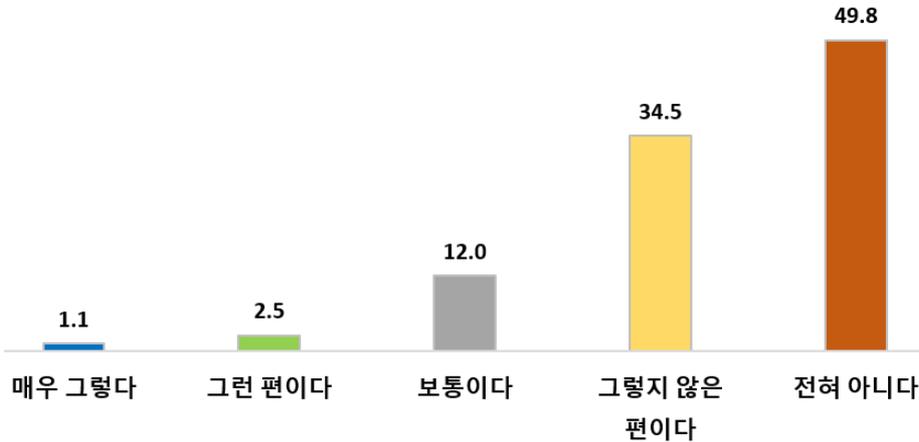
3-17 스마트폰 이용실태 - 4) 사람간에 갈등을 야기한 원인

사람 간에 「갈등 경험」 3.6%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족, 친구, 동료 등과 심한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아니다」 응답이 49.8%로 가장 많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 34.5%, 「보통이다」 12.0% 순으로 나타남.

- 「그렇다」(3.6%) 응답보다 「그렇지 않다」(84.3%)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그렇다」 응답은 서남부권 5.8%, 북부권 5.5%, 중부권 0.4%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사람 간에 갈등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5~29세에서 12.7%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 응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마트폰 이용실태 - 사람간에 갈등을 야기한 원인



[표 3-20] 스마트폰 이용실태 - 4) 사람간에 갈등을 야기한 원인

(단위: %)

구분	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간에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다							
		소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아니다		
2020년	100.0	76.0	100.0	1.1	2.5	12.0	34.5	49.8	24.0
< 지역별 >									
중부권	100.0	80.3	100.0	0.0	0.4	8.3	39.6	51.6	19.7
북부권	100.0	68.4	100.0	0.4	5.1	16.7	27.3	50.6	31.6
서남부권	100.0	76.7	100.0	2.7	3.1	13.1	33.4	47.6	23.3
< 성별 >									
남자	100.0	85.8	100.0	0.8	3.0	12.8	33.8	49.7	14.2
여자	100.0	64.6	100.0	1.7	1.7	10.9	35.6	50.1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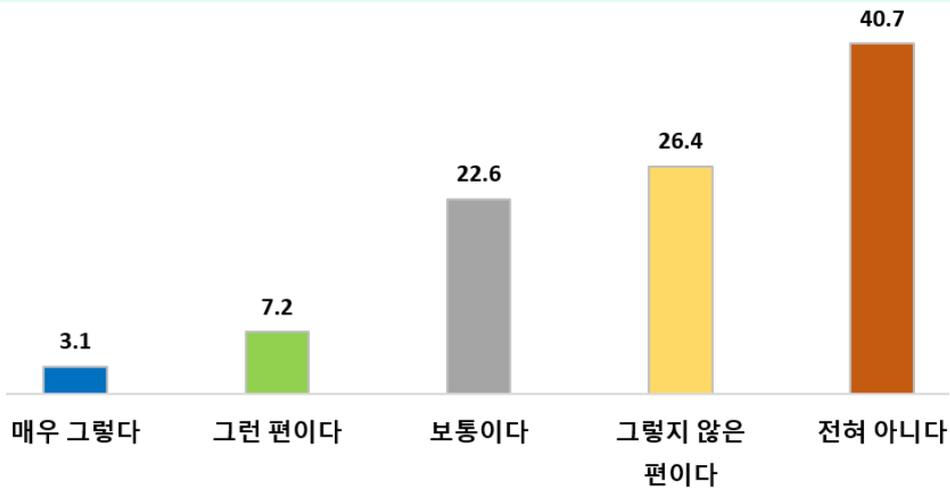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18 스마트폰 이용실태 - 5) 통증 경험(눈이나 목 등)

눈이나 목의 통증 경험 「있다」 10.3%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눈이나 목 등이 아팠던 경험에 대해 「전혀 아니다」 응답이 40.7%로 가장 많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4%, 「보통이다」 22.6% 순으로 나타남.
- 「그렇다」(10.3%) 응답보다 「그렇지 않다」(67.1%)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그렇다」 응답은 서남부권 10.9%, 북부권 10.6%, 중부권 9.5%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통증을 경험한 응답은 15~29세에서 20.1%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증 경험 「그렇다」는 응답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스마트폰 이용실태 - 통증 경험(눈이나 목 등)



[표 3-21] 스마트폰 이용실태 - 5) 통증 경험(눈이나 목 등)

(단위: %)

구분	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통증 경험(눈이나 목 등)							
		소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아니다		
2020년	100.0	76.0	100.0	3.1	7.2	22.6	26.4	40.7	24.0
<지역별>									
중부권	100.0	80.3	100.0	1.1	8.4	18.2	30.3	42.0	19.7
북부권	100.0	68.4	100.0	2.7	7.9	20.2	22.9	46.3	31.6
서남부권	100.0	76.7	100.0	5.4	5.5	28.3	24.5	36.3	23.3
<성별>									
남자	100.0	85.8	100.0	3.1	8.1	24.6	25.6	38.5	14.2
여자	100.0	64.6	100.0	3.1	5.7	19.4	27.6	44.1	35.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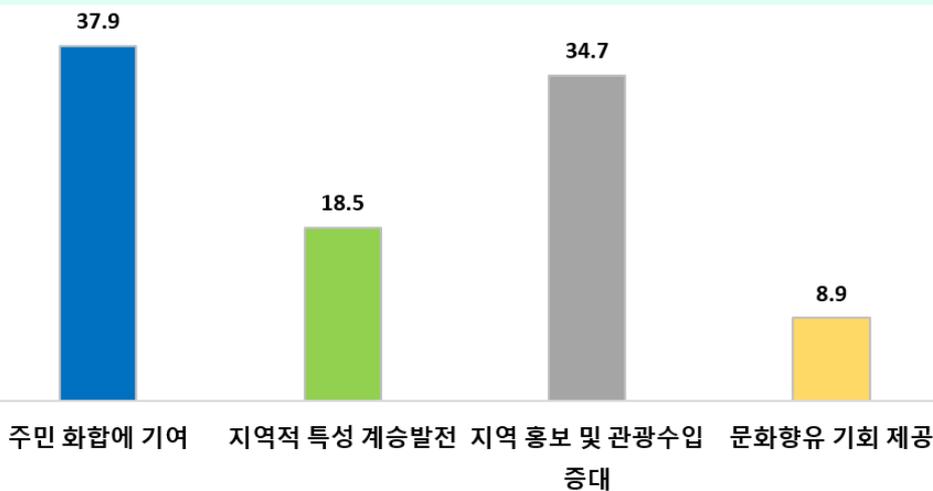
3-19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 긍정적 의견

지역 문화행사 77.5% 긍정적으로 생각

• 지역 문화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77.5% 응답하였으며, 긍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주민 화합에 기여」(37.9%)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에 「긍정적이다」 응답은 2018년(85.1%)대비 7.6% 감소함.
- 긍정적인 이유는 「주민 화합에 기여」 37.9%, 「지역 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 34.7%, 「지역적 특성 계승발전」 18.5%, 「문화향유 기회 제공」 8.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긍정적이다」 응답은 북부권 89.6%, 중부권 78.5%, 서남부권 69.0% 순이며, 긍정적인 이유로 중부권과 서남부권에서 「주민 화합에 기여」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지역 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 긍정적 의견



[표 3-22]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 긍정적 의견

(단위: %)

구 분	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잘모르겠다	
		소계	주민 화합에 기여	지역적 특성 계승발전	지역 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	문화향유 기회 제공	기타			
2018년	100.0	85.1	100.0	47.2	14.7	34.4	3.8	7.1	7.8	
2020년	100.0	77.5	100.0	37.9	18.5	34.7	8.9	7.8	14.7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78.5	100.0	40.3	22.7	34.0	3.0	8.4	13.1	
북 부 권	100.0	89.6	100.0	25.8	19.7	38.4	16.0	5.2	5.2	
서 남 부 권	100.0	69.0	100.0	45.2	12.9	32.6	9.3	8.7	22.3	
< 성 별 >										
남 자	100.0	80.0	100.0	34.8	20.3	34.8	10.2	8.3	11.7	
여 자	100.0	74.7	100.0	41.8	16.3	34.7	7.2	7.1	18.1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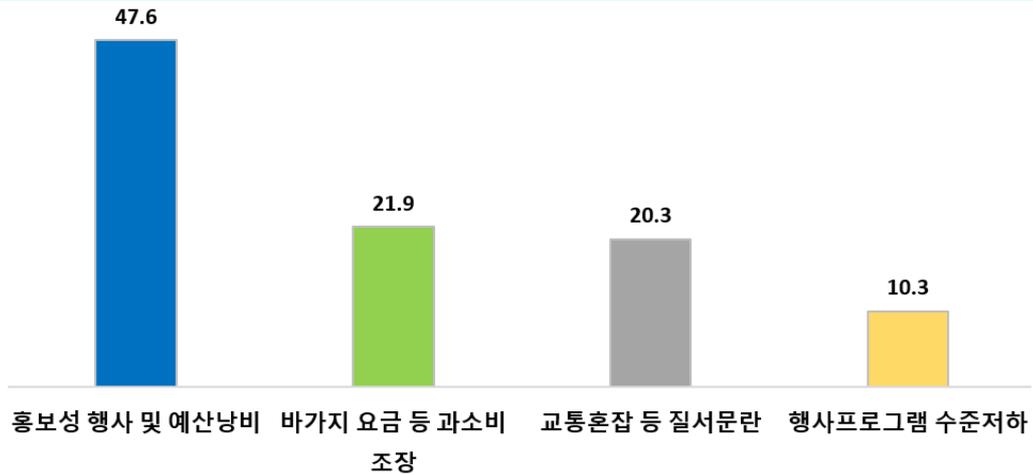
3-20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 부정적 의견

부정적인 이유는 「홍보성 행사 및 예산 낭비」

- 지역 문화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홍보성 행사 및 예산 낭비」 47.6%로 가장 많고, 「바가지요금 등 과소비 조장」 21.9%, 「교통 혼잡 등 질서문란」 20.3%, 「행사 프로그램의 수준 저하」 10.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홍보성 행사 및 예산 낭비」 응답이 가장 많으며, 중부권 61.4%, 북부권 43.8%, 서남부권 36.2% 순으로 나타남. 2순위 응답으로 중부권은 「교통 혼잡 등 질서문란」(33.9%)이고, 북부권(41.1%)과 서남부권(35.0%)은 「바가지요금 등 과소비 조장」 응답으로 나타남.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 부정적 의견



[표 3-23]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 부정적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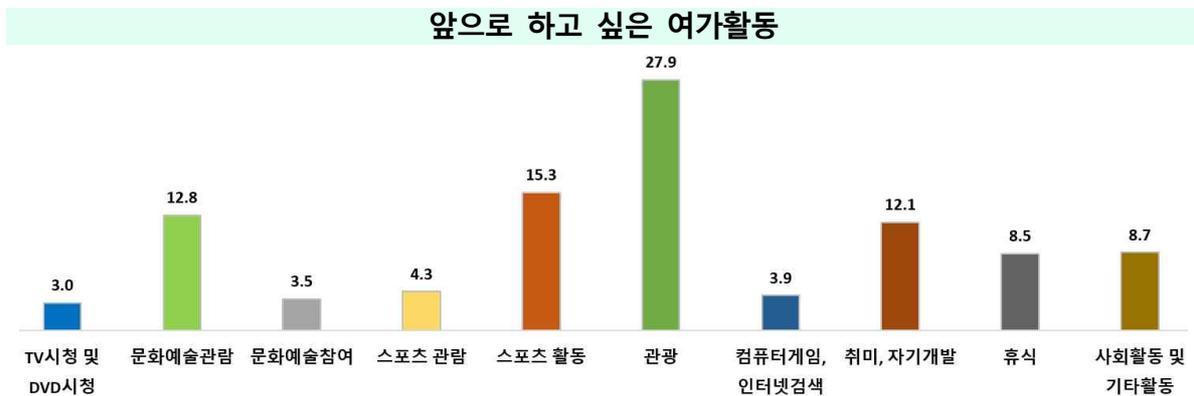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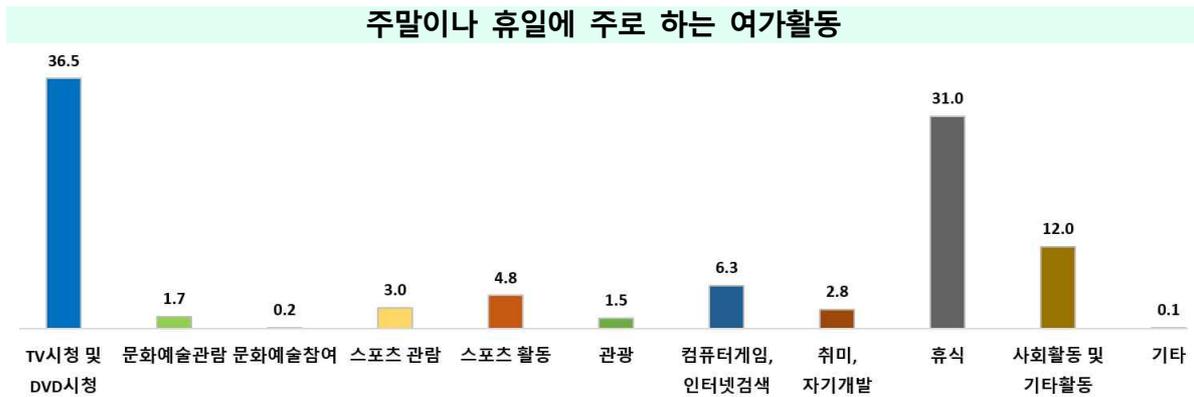
구 분	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잘모르겠다
			소계	홍보성 행사 및 예산낭비	바가지요금 등 과소비 조장	교통혼잡 등 질서문란	행사프로그램 수준저하	기타	
2018년	100.0	85.1	7.1	100.0	76.1	11.4	3.9	8.6	7.8
2020년	100.0	77.5	7.8	100.0	47.6	21.9	20.3	10.3	14.7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78.5	8.4	100.0	61.4	0.0	33.9	4.7	13.1
북 부 권	100.0	89.6	5.2	100.0	43.8	41.1	15.2	0.0	5.2
서 남 부 권	100.0	69.0	8.7	100.0	36.2	35.0	9.5	19.4	22.3
< 성 별 >									
남 자	100.0	80.0	8.3	100.0	51.2	22.7	20.7	5.4	11.7
여 자	100.0	74.7	7.1	100.0	42.7	20.8	19.6	16.9	18.1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21 여가활동

주로 「TV시청」을 하며, 하고 싶은 여가는 「관광」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36.5%)이 가장 많고, 앞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관광」(27.9%)을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응답함.



[표 3-24] 여가활동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복수응답) (단위: %)

구분	TV시청 및 DVD시청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	취미 자기개발	휴식	사회활동 및 기타활동	기타
2020년 <지역별>	36.5	1.7	0.2	3.0	4.8	1.5	6.3	2.8	31.0	12.0	0.1
중부권	40.7	0.8	0.2	1.4	3.3	1.8	5.1	1.0	36.6	8.9	0.2
북부권	31.5	3.3	0.3	7.3	5.8	2.4	7.6	6.0	21.2	14.5	0.1
서남부권	37.2	1.4	0.0	1.1	5.6	0.4	6.4	2.0	33.1	12.8	0.0

[표 3-25] 여가활동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 (단위: %)

구분	TV시청 및 DVD시청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	취미 자기개발	휴식	사회활동 및 기타활동	기타
2020년 <지역별>	3.0	12.8	3.5	4.3	15.3	27.9	3.9	12.1	8.5	8.7	
중부권	1.1	12.0	3.1	4.1	21.0	29.2	3.1	12.6	5.4	8.4	
북부권	3.3	17.0	2.5	5.2	10.6	22.3	5.7	12.3	12.8	8.4	
서남부권	4.9	9.9	4.8	3.8	13.4	31.5	3.1	11.2	8.1	9.2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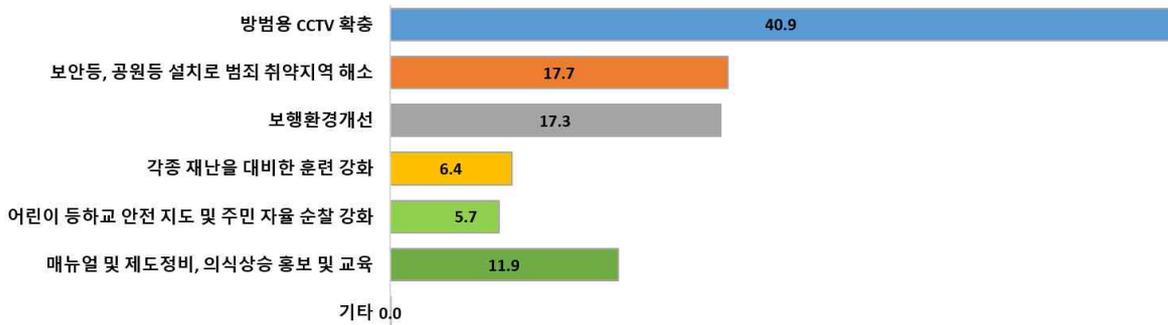
3-22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방안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법용 CCTV 확충」해야

•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방법용 CCTV 확충」이 40.9%로 가장 많고,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 17.7%, 「보행환경개선(보도블럭, 방지턱, 안전웬스 설치 등)」 17.3%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대비 「방법용 CCTV 확충」 응답은 42.3%에서 40.9%로 1.4% 감소함. 「보행환경개선」 응답은 15.0%에서 17.3%로 2.3% 증가함.
- 모든 지역에서 「방법용 CCTV 확충」 응답이 가장 많으며, 중부권 44.0%, 서남부권 42.7%, 북부권 33.4% 순으로 나타남. 2순위 응답은 중부권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18.4%), 북부권 「보행환경개선」(22.1%), 「안전 매뉴얼 및 제도정비, 시민의식을 높이는 홍보 및 교육」(19.2%)으로 조사됨.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방안



[표 3-26]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구분	계	방법용 CCTV 확충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	보행환경개선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 강화	어린이 등하교 안전 지도 및 주민 자율 순찰 강화	매뉴얼 및 제도정비, 의식상승 홍보 및 교육	기타
2018년	100.0	42.3	18.6	15.0	6.9	5.3	12.0	0.0
2020년	100.0	40.9	17.7	17.3	6.4	5.7	11.9	0.0
< 지역 별 >								
중부권	100.0	44.0	18.4	16.3	5.4	6.5	9.4	0.0
북부권	100.0	33.4	16.1	22.1	13.8	9.9	4.4	0.1
서남부권	100.0	42.7	18.0	15.2	2.6	2.3	19.2	0.0
< 성 별 >								
남자	100.0	38.5	15.1	17.3	7.0	6.2	15.8	0.1
여자	100.0	43.7	20.7	17.3	5.7	5.1	7.4	0.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23 주거 화재 안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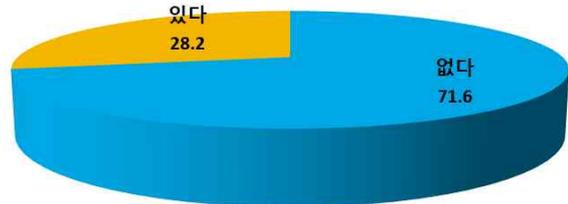
소화기 59.9%, 단독경보형 감지기 28.2% 보유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소방시설이 기준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이 소화기 59.9%,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28.2%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소화기 보유는 서남부권 63.4%, 중부권 58.9%, 북부권 55.9% 순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중부권 33.0%, 서남부권 32.5%, 북부권 13.9%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소방 시설은 여자(소화기 47.3%, 감지기 24.9%)보다 남자(소화기 62.7%, 감지기 28.9%)가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소화기 보유는 30대(73.9%)가 가장 많고, 70세 이상(42.4%)에서 가장 적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50대(38.4%)에서 가장 많고, 15~29세(0%)는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모두 「보유」 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거 화재 안전시설
(소화기)



주거 화재 안전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표 3-27] 주거 화재 안전시설

(단위: %)

구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계	없다	있다	모르겠다	계	없다	있다	모르겠다
2020년 <지역별>	100.0	39.8	59.9	0.3	100.0	71.6	28.2	0.2
중부권	100.0	40.7	58.9	0.3	100.0	67.0	33.0	0.0
북부권	100.0	43.2	55.9	0.9	100.0	85.3	13.9	0.8
서남부권	100.0	36.6	63.4	0.0	100.0	67.5	32.5	0.0
<성별>								
남자	100.0	37.0	62.7	0.3	100.0	70.8	28.9	0.2
여자	100.0	52.0	47.3	0.7	100.0	75.1	24.9	0.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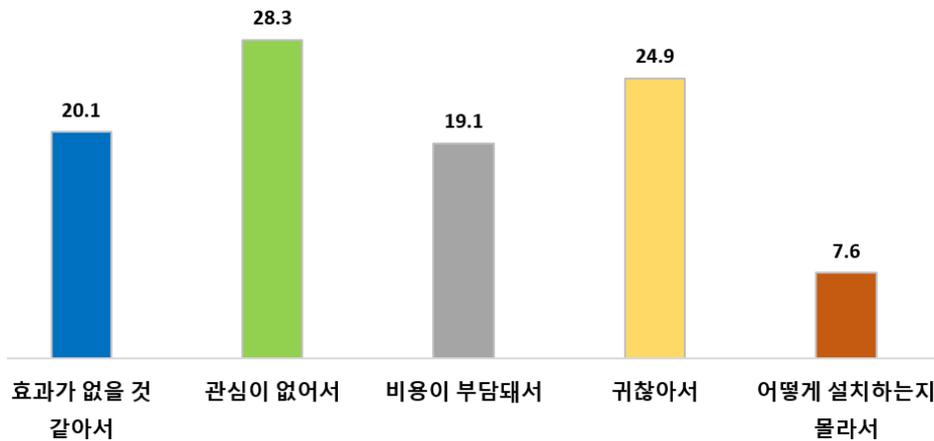
3-24 주거 화재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 - 향후 설치의향

설치 의향 「없다」 44.6%, 「관심이 없어서」 28.3%

• 주거 화재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 향후 설치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44.6%로 나타나며, 그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28.3%, 「귀찮아서」 24.9%,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0.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설치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북부권 49.9%, 중부권 42.8%, 서남부권 42.1% 순이며, 그 이유로 중부권은 「귀찮아서」(49.6%), 북부권은 「관심이 없어서」(46.6%), 서남부권은 「비용이 부담돼서」(30.5%) 인 것으로 조사됨.
- 남자(42.3%)보다 여자(54.0%)가 설치 의향이 없고, 남자는 「관심이 없어서」(31.2%) 응답이 가장 많고, 여자는 「귀찮아서」(37.6%)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5~29세 연령대에서 설치 의향이 「없다」 응답이 60.2%로 가장 많고, 그 이유는 「귀찮아서」(100.0%)로 나타남.

향후 설치의향



[표 3-28] 주거 화재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 - 향후 설치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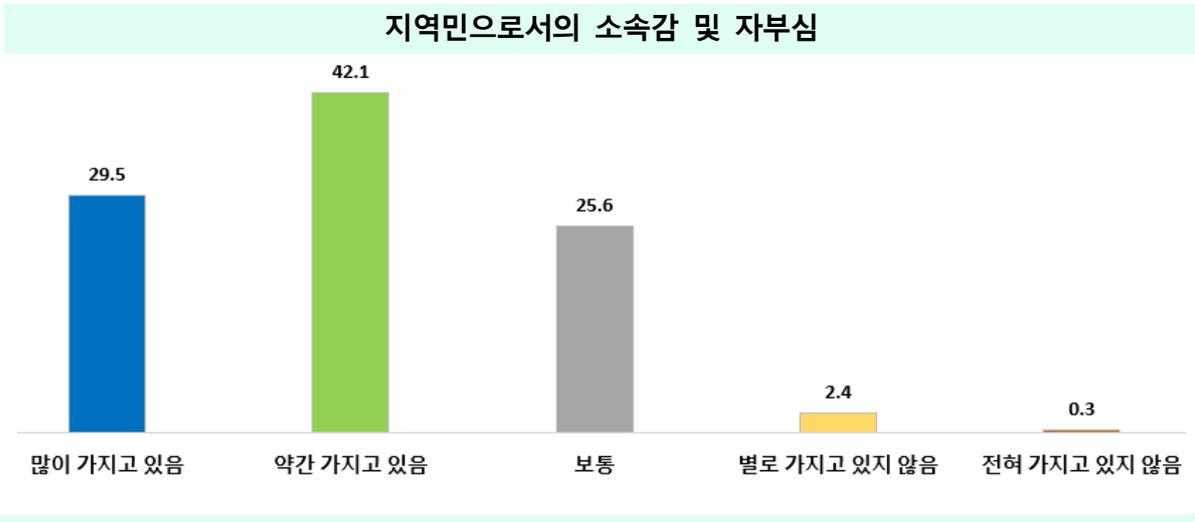
구분	계	있다	없다	설치의향이 없는 이유					
				소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관심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귀찮아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라서
2020년	100.0	55.4	44.6	100.0	20.1	28.3	19.1	24.9	7.6
< 지역별 >									
중부권	100.0	57.2	42.8	100.0	21.0	13.6	13.3	49.6	2.5
북부권	100.0	50.1	49.9	100.0	19.7	46.6	13.5	9.6	10.6
서남부권	100.0	57.9	42.1	100.0	19.7	25.7	30.5	14.4	9.8
< 성별 >									
남자	100.0	57.7	42.3	100.0	24.4	31.2	18.6	21.0	4.8
여자	100.0	46.0	54.0	100.0	6.1	18.8	20.9	37.6	16.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3-25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지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은 「가지고 있다」(많이 가지고 있음+약간 가지고 있음)가 71.6%로 나타남.
- 소속감과 자부심은 2018년 「가지고 있다」 61.5% 대비 10.1% 증가함.
- 지역별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응답은 중부권 75.0%, 북부권 73.2%, 서남부권 67.2% 순으로 나타남.
- 소속감과 자부심의 정도는 여자(69.2%)보다 남자(73.7%)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60대(80.2%)에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15~29세(52.1%)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9]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단위: %)

구분	계	많이 가지고 있음	약간 가지고 있음	보통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음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2016년	100.0	14.4	39.0	40.2	5.1	1.3
2017년	100.0	17.9	39.0	37.8	4.0	1.3
2018년	100.0	26.0	40.3	31.4	1.4	0.9
2019년	100.0	28.2	33.3	33.2	4.9	0.4
2020년	100.0	29.5	42.1	25.6	2.4	0.3
< 지역별 >						
중부권	100.0	37.8	37.3	19.0	5.0	0.9
북부권	100.0	31.6	41.6	25.5	1.3	0.0
서남부권	100.0	20.2	47.0	32.0	0.7	0.0
< 성별 >						
남자	100.0	32.3	41.4	23.3	2.4	0.6
여자	100.0	26.3	42.9	28.3	2.5	0.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